

함평군보건소-초당대학교, 정신질환 인식개선 공동 협력

치매파트너·자원봉사단체 양성·자살예방캠페인 지역사회 건강조사 수집 각종 통계자료 상호 공유

함평군보건소는 최근 초당대학교 초당시니어건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등 정신질환 인식개선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등 정신질환에 대한 국내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초당대학교 교수진과 학생들을 활용해 치매파트너와 자원봉사단체를 양성하고 적극적인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맞춤형 치매관리 계획 등 치매연구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수집한 각종 통계자료를

상호 공유한다.

정명희 보건소장은 “치매 등 정신질환은 단순한 개인문제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초당시니어건강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정신이 건강한 지역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강진군, 치매환자 가족 교실 ‘헤아림’ 프로그램 성료

8월 2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주 1회 운영 큰 호응



강진군은 치매안심센터에서 8월 27일부터 시작한 치매환자 가족 교실 ‘헤아림’ 프로그램이 지난 22일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가족 교실 ‘헤아림’은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을 제공해 치매환자를 이해하고 가족들의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

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8월부터 8주간 주 1회 진행됐다.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사전 예약한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상인원을 7명으로 제한하고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됐다.

강진=김영일기자

치매의 이해부터 치매환자와의 의사소통 방법까지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가족의 자기 돌보기를 위한 아로마요법, 원예요법, 다도체험 등 다양하고 유익한 주제로 운영돼 큰 호응과 더불어 치매대도착도 및 부양부담평가척도, 만족도 등에 높은 평가를 받으며 종료됐다.

서현미 강진군보건소장은 “가족교실은 치매환자의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류의 장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가족 간 지속적인 자조 모임을 운영해 서로 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심리적 부양부담 감소와 소통을 위한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인성교육·진로교육

지난 9월부터 관내 중학생 대상 집단상담 실시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9월부터 지난 23일까지 두 달간 관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및 인성교육을 통해 자기이해, 진로계획을 설정하고

개인의 역량강화 및 성품을 기르는 집단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담양수북중학교 청소년 진로집단상담 ‘내 꿈을 잡(Job)아 봐’ 10회기를 진행했고,

장평중학교 청소년 인성집단상담 ‘올바름’ 4회기로 진행되었다.

청소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올바름’에서는 자기존중, 성실, 배려·소통, 자기조절로 자신과 타인의 이해하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알아차리고 생각 전환 연습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습득했다.

또한, ‘내 꿈을 잡(Job)아 봐’ 청소년 진로교육프로그램은 자신이 가진 흥미와 적성을 찾고 내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고 직업과 진로의 다양성 등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담양=박종영기자

무안군, 장애인복지시설 방역점검

무안군은 지난 20일부터 3일간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해 휴관중이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이 10월 13일부터 재개됨에 따라 전염병에 취약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시설은 무안군 장애인종합

복지관을 비롯해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무안자립원, 주바라 무안복지원, 무안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무안군 수어통역센터, 무안군 생활이동지원센터 등 7개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무안군 등록장애인 수는 총 6,328명이다.

무안=이기성기자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로타리클럽·경찰과 ‘함께 걷기’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진철)이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을 위해 관내 사회단체, 경찰이 참여한 ‘함께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고병수 사회복지사와 로타리클럽 박동석 회장과 소속 회원, 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배성대 경장 등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가운데 지난 2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임회면 수장저수지에서 ‘함께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혼자 걷기 힘든 장애인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동행 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3월부터 11

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로타리클럽과 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월 1회씩 자원봉사자로 꾸준히 참여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다가 지난 23일 처음 진행되었다.

진도=조상용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스카우터 한수원